

<지난주 말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자칫하면 교만할 수 있고 내 생각대로 갈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두드린다는 것은 주인이 같이 가자, 함께 가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인생을 살게,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게, 함께 갈게, 갈2:20에서 말씀하신 내가 사는 것은 주인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짐을 들고 가겠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기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어떡하지? 아닙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이 내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 문이 열렸을 때 들어오신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의 한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의 정체성은 바로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은 영적 군사, 농부, 선수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인 100% 하나님이 생명 건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다가 죽도록 하셨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감옥 보내셔서 생명을 걸도록 훈련시켰습니다. 모세도 어릴 때 죽음을 통과하고 바로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훈련시키셨습니다. 다윗도 열일곱에 기름을 부어서 전쟁터로 갔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다는 것은 죽음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죽을 고비를 겪게 하셔서 생명을 걸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런 죽음을 통과하는 생명 건 훈련을 통해 시대를 움직이고 시대 주역을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하늘의 악한 영입니다. 그렇게 싸워서 마지막에 서기 위함입니다. 이기는 자는 무장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와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면 되겠구나,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론>

1.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사자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계

3:14)

하나님은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의 근본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계3:15-16)

이 창조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책망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이 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이 귀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온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하는데,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않으면 네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네 영적 상태를 정리해라. 네 영적 상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결단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계3:17)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고 사는 생활이 넉넉하고 괜찮았어요. 그러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영적 상태는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벌거벗고 돌아다니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수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기도 않고 안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 우리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편도 아니고, 저편도 아닌 것 같고 가만히 지켜보자, 하고 있는 거요. 왜? 이렇게 하면 손해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이익이 없을 것 같고. 정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여러분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을 토해 버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계3:18)

영적인 부분을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눈먼 사람에게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 때 당시 안약이 특산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먼 인생을 향해서 이런 것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흰 옷은 정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자는 흰 옷을 입고 네 수치를 가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계3:19)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은 주님의 또다른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책망하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말을 율법적으로 들으면 안됩니다. 복음 속에 들어와라, 말씀 속에 들어와라, 이 정체성 속에, 이기는 자 속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계3:20)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함께 산다는 말입니다.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서 너와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멋대로 뭐가 됐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24시 주님이 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여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3:21)

이기는 자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하고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계3:22)

귀가 열려서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 붙잡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이 약속 붙잡고 이제 보좌로 가는 것입니다.

2.이 일 후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

이리라 하시더라(계4:1)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문 쪽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음성이 들리는데 올라오라, 내가 앞으로 나타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계4:2)

이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 분이십니다. 그 분이 나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싸서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계4:3-4)

이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설명하기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주석가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 분이 보좌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보좌는 단지 하나님이 앉으신 의자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으신 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이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켄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계4:5)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보좌로부터 보여주는 것입니다. 충만히 임재한 성령의 모습을 보좌로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모습, 성자 하나님의 모습,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상상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3.보좌 앞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계4:6)

이 말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영적 존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일일이 해석하기는 역부족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보았나 하면, 말씀 그대로 보면 된다.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중에 주인이 보여주시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계4:7-8상)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영적 존재들입니다. 이 생물들을 묘사한 것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모습입니다. 이 네 생물이 보좌 주위를 맴돌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계4:8하)

이 네 생물이 하는 게 뭐니까? 24 영광입니다. 영세 전에 계신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서실 그리스도, 영원히 계실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계4:9-10)

누가 영광을 받으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신 이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서 이 네 생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보좌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계4:11)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임을,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심을 24명의 장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영광을 돌리는, 경배해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나를 두드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보좌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3-4장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 분은 지금도 237나라 5000종족을 살리고 있습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는 그 분이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문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 같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237나라 5000종족 세계복음화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세계복음화하고 보좌 앞으로 데려가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보좌 앞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모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눈을 뜨면 성령의 감동 받기 위해서 7,7,7,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영이 내게 임하도록, 그 비밀을 가지고 살도록,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정표를 남기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보좌의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기를 바랍니다.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좌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적 존재를 보길 바랍니다. 쉬지않고 영광을 돌리는 생물들의 모습을 보길 바랍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날마다 영광 돌려야 할 분은 창조의 근본 되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기억하십시오. 아, 이번 명절에도 주님은 내 문을 두드리셔서 나와 함께 가길 원하는구나, 주님이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문을 열기만 하면 내 인생은 보좌로 연결되는구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생명빛교회
ζωη φως ἐκκλησία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0-147호

담임목사 : 곽동호

전 화 : 010-5205-4079

E - mail : dhkwak0224@hanmail.net

인생복음상담 : 070-4406-4079